

LED전광판

기술 가이드

2026-09-18 · (주)연우솔루션 작성 · 사진 9장

바뀐 법, 간판 자리에 LED를 올리기 전

간판 교체 상담 자리에서 사장님이 휴대폰을 내민다. 길 건너 가게 외벽 사진이다. 영상이 흐르는 LED전광판 한 장. “저 정도 크기면 우리 벽에도 되죠?”

바뀐 법, 간판 자리에 LED를 올리기 전



외벽 LED전광판, 결정하는 순서 두 가지

BEFORE · 이전엔

모듈과 크기부터 고른다

치 뒤 민원·시정 명령이 나오면 철거.
공·열 가게 사진이 유일한 기준이 된다

AFTER · 이렇게

구역·층수·면적부터 확인한다

허가 범위 안에서 크기·밝기·표출 방식.
도면에 숫자를 담아 접수부터 진행

원문 수록 이미지 · 원문 전체 사진은 홈페이지 현장 사례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

핵심 정리

- 01 신고로 끝나는 벽과 허가가 필요한 벽은 캐비닛 한 줄에서 갈린다
- 02 견적서는 화면 값보다 벽 뒤의 값에서 달라진다
- 03 실측부터 커는 날까지, 서류 기간이 일정의 절반을 차지한다
- 04 설치 뒤의 1년이 매장 전광판의 실제 비용을 정한다

본문 속 수치

2016년

2016년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

4m

같은 가로 4m 간판 자리라도

10m

대략 면적 5㎡, 한 변 10m, 건물
4층 이상 같은 숫자가 기준으로
거론되지만

960mm

실의 P6 전광판은 보통
960×960mm 캐비닛을 이어
붙인다.

벽은 같아 보여도 층수, 면적, 구역이 다르면 답이 달라진다.

옥외광고물법이 바뀐 뒤로, 매장 LED전광판 설치 모듈을 고르기 전에 이 숫자부터 확인한다.

법이 바뀐 것은 화면이 아니라, 광고물로 보는 범위다

2016년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

‘디지털광고물’이 별도의 표시 방법으로 법에 들어왔다.

그 뒤 시행령과 지자체 조례가 여러 차례 손질되면서

매장 외벽의 LED전광판은 불이 켜지는 간판이 아니라

적용 디스플레이

옥외 LED 전광판 · DID·사이니지 모니터

구성 요소

CMS·스케줄 송출 · 원격 관제·제어 · 콘텐츠 제작 · 3D 모델링·설계 · LED 컨트롤러·송신카드

진행 단계

현장 실측 → 구성 제안·설계 → 제작·발주 → 설치·시공 → 시운전·인수 교육 → 운영·유지보수

관련 솔루션

LED 전광판 · 미디어파사드

LED 전광판 신설 · 교체

Windows 10 지원 종료 · 노후 플레이어 전환

찾은 현장 출동

이 가이드로 상담

☎ 010-2700-2648 · ✉ osskoreaing@gmail.com

원문 · 사진 전체: screenmaru.co.kr/blog/224416017095.html



연우솔루션
YEONWOO SOLUTION

기술 가이드 017095